광양상의 설립 싸고 지역 갈등 확산

〈광양 VS 여수〉

순천 "광양만권 분열행위…중단해야"

광양 " 심각한 자치권 훼손" 강력 반발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을 둘러싸고 순천과 광양지역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회 등 순천지역 일부 기관·단체가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광양만권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지역 간 갈등조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순천시의회는 또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전남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상대로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광양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순천시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광양상의 독자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성웅 광양시장과 광양지역 도·시의원과 지역 상공인들은 지난달 26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칭)광양상공회의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박상옥 광양상공회의소 발기인 대표는 "순천지역 일부 단체의 설립 반대 움직임은 광양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심각한 자치권 침해행위"라며 "3만2천여 주민들의 뜻에 따라 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천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광양지역 상공인들도 "진정으로 광양만권 통합을 바란다면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여수상의와 먼저 통합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지역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광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가 열리는 등 광양상의 독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은 지난해 6월 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촉구 시민운동본부' 결성과 3만2천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가시화됐으며 지난해 12월 광양시의회도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여수 77층 특급호텔 건립 사실상 무산

민간업체 제안서 제출 안돼…엑스포 기간 숙박난 우려

77층짜리 특급호텔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숙박난이 우려되고 있다.

올 상반기부터 민간업체가 2012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국동항 주변에 77층 규모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안서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어 여수시와 세계박람회 지원단에서는 호텔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77층짜리 호텔 건립 추진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5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국동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43층 규모의 호텔 건립은 현재 계획서는 제출돼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호텔 건립이 불투명해지면서 2012 세계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숙박난 해소를 위해 민자유치에 의한 호텔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양면에 건립 중인 오션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만으로는 2012 세계박람회를 치르기에 부족하다"며 "숙박난 해소를 위해 민자 유치로 호텔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선진 교정행정' 돋보이네

순천교도소 '가족 만남의 집' 이용 확대

순천교도소(소장 정종신)가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가족 만남의 집〈사진〉은 현재까지 40여명의 수용자들이 1박2일간 가족들과 상봉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11명의 이용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다.

이들 가운데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용중인 이모씨도 포함돼 10년만의 가족만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종신 순천교도소장은 "앞으로도 귀휴, 사회봉사활동,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선진교정행정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수중 쓰레기 수거·불가사리 채취대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전국 수중 쓰레기 수거 및 불가사리 채취대회가 최근 여수 수협공판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사)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회장 조복연)를 비롯해 (사)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SSU(해군 특수전대 심해잠수대대) 대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폐쓰레기 10여t을 수거했다. 〈해병대전우회 제공〉

'정원 박람회' 유치 심포지엄 열린다

순천시 1~2일, 獨 등 참가

오는 2012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순천시가 1·2일 이틀간 순천대학교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순천시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는 1·2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정원박람회와 아름다운 도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독일 등 4개국 전문가 5명과 서울대 성종상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2012년 도사동 오천 공원 일대 105만㎡에서 국제 생태 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순천시는 내년에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오천 공원 일대에 생태 주제 정원과 실내 전시장 등 3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원박람회는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순천시는 우호교류 협약을 한 프랑스 낭트시 및 10여년 간 교류를 지속해오는 중국 영파시를 비롯해 독일, 일본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주차장 부지에 족구장 조성 '빈축'

국민연금 순천지사 신축 건물에…예산낭비 비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순천지사가 종합 운동시설을 갖춘 팔마체육관 인근에 지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족구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순천지사는 52억원을 들여 순천동 연향동 3지구에 대지면적 2천568㎡(776평), 연면적 1천164.8㎡(352평) 규모의 지사회관(3층)을 건립, 지난달 29일 개관했다.

또 30면의 주차공간과 다목적 회의실, 야외 족구장(배드민턴)을 갖추고 순천시민들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좁은 주차공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를 쪼개 족구장을 설치했다.

현재 국민연금 순천지사 인근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건너편에 팔마체육관이 있는데도 족구장을 조성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39·용당동)씨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순천지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이 최우선이며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팔마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순천지사는 32명(남 19명, 여 1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본 부 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국장
박양규 부장
지광현 차장
김춘호 차장
김은종 기자
선상근 기자

순천 터미널 이용객 42% "주차장 확보 급하다"

350여명 설문 "시외·고속버스 통합 잘했다" 66%

순천시 종합버스터미널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가 8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종합버스터미널 이용객 35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불편한 문제로 응답자의 42%가 '주차시설 부족'을 꼽았다.

또 29%는 '교통소통 불편', 20%는 '휴식공간 부족', 9%는 '교통안전 시설물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종합버스터미널로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순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